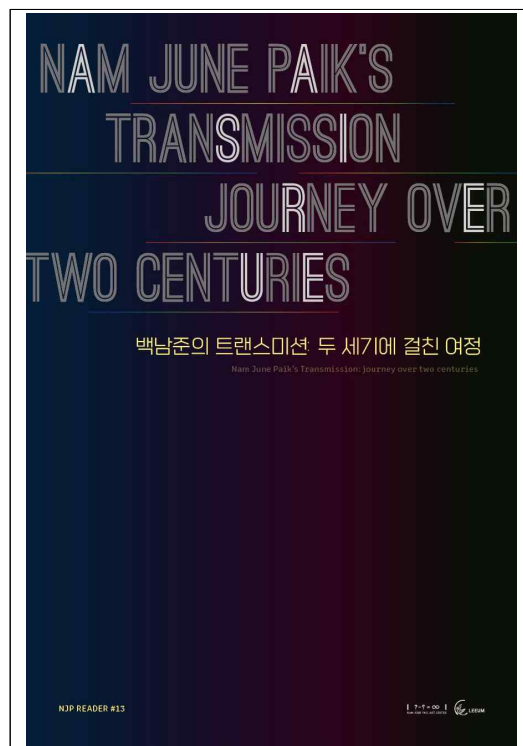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문의	학술 : 박상애 학예사 t.031-201-8542 m.010-2704-4540 취재 : 이상아 학예사 t.031-201-8549 m.010-4739-5307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4. 6. 10	쪽수	총 3매

백남준아트센터 NJP 리더 13 『백남준의 트랜스미션: 두 세기에 걸친 여정』 출간



- ▶ 미술관에 소장된 야외 미디어 아트 작품의 수집, 전시, 보존, 기록에 관한 연구서
- ▶ 백남준의 야외 설치 작품 <트랜스미션 타워>(2002)와 <20세기를 위한 32대의 자동차: 모차르트의 진혼곡을 조용히 연주하라>(1997)의 제작과 전시 이력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출판물
- ▶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온라인 연구서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는 온라인 학술연구서 NJP 리더 13 『백남준의 트랜스미션: 두 세기에 걸친 여정』을 2024년 5월 출간했다. NJP 리더는 연례 국제 학술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과 연계하여 백남준아트센터가 출간하는 학술 연구서이다. 열세 번째 NJP 리더는 미술관에 소장된 야외 미디어 설치 작품의 수집, 전시, 보존, 기록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백남준의 대표 야외 설치 작품 두 점을 중심으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자동차와 레이저의 설치 가변성과 미술관 수집과 보존에서 고려해야 하는 지점들에 대해 작가, 백남준아트센터와 리움미술관의 큐레이터와 테크니션, 보존전문가의 경험 사례를 엮었다. 이 책은 백남준아트센터가 2023년 11월에 리움미술관과 공동 개최했던 동명의 학술심포지엄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온라인으로 출간한 것으로,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NJP 리더 13 『백남준의 트랜스미션: 두 세기에 걸친 여정』은 백남준의 야외 설치 작품 중 〈트랜스미션 타워〉(2002, 백남준아트센터 소장)와 〈20세기를 위한 32대의 자동차: 모차르트의 진혼곡을 조용히 연주하라〉(1997, 리움미술관 소장)의 제작, 전시, 수집, 보존에 관한 이력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책은 모두 3부로 나뉜다. 1부는 〈20세기를 위한 32대의 자동차: 모차르트의 진혼곡을 조용히 연주하라〉의 제작과 수집과 보존에 대한 기록과 견해를 다룬다. 2부는 〈트랜스미션 타워〉의 구성과 전시, 그리고 백남준의 레이저 작업에 대한 글들로 구성된다. 3부는 ‘미술관에서 작품이 살아남는 법’이라는 주제로 동시대 예술작품의 미술관 수집과 보존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포함한다. 이 책은 각 작품의 수집과 전시, 보존과 설치, 기록에 참여했던 작가와 학예연구사들의 사례들을 생생하게 정리했다. 또한 가변 미디어 설치 작품들의 보존과 복원 분야에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보존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관점의 질문을 던진다.

NJP 리더 13 『백남준의 트랜스미션: 두 세기에 걸친 여정』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같은 해 진행되었던 특별전 《트랜스미션: 너에게 닿기를》(2023.08.31.~12.03.)과 동명의 심포지엄(2023.11.23.) 기록과 사진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총 247페이지의 NJP 리더 13 『백남준의 트랜스미션: 두 세기에 걸친 여정』은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www.njpartcenter.kr) 참조

■ NJP 리더 13 - 백남준의 트랜스미션: 두 세기에 걸친 여정

■ 목차

1부

백남준의 <20세기를 위한 32대의 자동차: 모차르트의 진혼곡을 조용히 연주하라> 제작의 역사

_마크 패츨폴(아티스트)

<20세기를 위한 32대의 자동차: 모차르트의 진혼곡을 조용히 연주하라>의 소장품 전시

_태현선(리움미술관 소장품연구실장)

<20세기를 위한 32대의 자동차: 모차르트의 진혼곡을 조용히 연주하라>의 보존: 작품의 원형과 변형에 대하여

_진지영(리움미술관 보존연구원)

2부

<트랜스미션 타워>: 세 번째 여정

_이기준(백남준아트센터 테크니션)

<트랜스미션 타워>: 백남준과 교신, 환경적 실현

_윤제호(아티스트)

악기를 연주하듯이: 백남준의 “레이저 아이디어”와 세계 순회 전시

_김윤서(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트랜스미션》 여행 일지

_박상애(백남준아트센터 아키비스트)

미술관에서 작품이 살아 남는 법

발표 1_김환주(대전시립미술관 보존연구원)

발표 2_핍 로렌슨(UCL 보존학 교수)

토론_김환주, 핍 로렌슨, 박상애, 진지영